월요광장

역사와 맥락을 지닌 건축물을 광주에서 보고 싶다

이봉수
현대계획연구소 소장

유럽을 찾는 사람들이 감탄하는 대상은 크고 웅장한 현대식 건축물만은 아닐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 그러한 높이와 규모는 언제든 다른 국가나 도시에서 보란 듯 갱신하며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된다. 1931년 세워져 40년 이상 가장 높은 건축물이라는 명성을 지녔던 미국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102층)은 이제 우리나라의 롯데월드타워(123층)보다 낮은, 일반적인 높이로 전락했다.

오히려 외부인이나 관광객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도시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고, 그 맥락을 이해할 수 있는 건축물이다. 오밀조밀한 골목길, 오랜 기간 다듬어 온 돌담길, 중세나 근대 양식의 주택과 상점들. 자연경관 등이 이어지고 거기에 도시를 상징할 수 있는 건조물까지 더해지면 매력은 더 높아진다. 1889년 프랑스혁명 100돌 기념 '파리 만국박람회' 당시 세워진 높이 약 320m의 파리 에펠탑이나 1884년 프랑스가 미국 독립 100주년을 맞아 선물한 뉴욕의 자유의 여신상처럼 스토리를 담고 있는 것이라면 더욱 금상첨화일 것이다.

과거 오랜 기간 광주를 상징하는 인공구조물은 광주읍성이었다. 거대한 규모는 아니지만 조선시대 정치와 행정의 핵심 공간으로, 그 바깥에 시장과 거주지가 이어지면서 도시를 구성하였다. 읍성의 둘레는 약 2.5㎞, 높이는 약 2.7m였다. 동문(서원문), 서문(광리문), 남문(진남문), 북문(공북문) 등 네 개의 문이 있었고, 주변에는 해자(垓子)가 있어 광주천·경양방죽 등과 연결돼 있었다.

읍성을 중심으로 한 광주의 도시 공간 구조를 깨뜨린 것은 일제였다. 읍성 내 국유지를 일본인들이 사들였으며, 이 읍성을 없애는 것은 곧 일본인 거주지의 확장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일제는 1906년 통감부를 설치한 직후 성벽처리위원회를 두고 각 지역 핵심 도시에 자리한 읍성을 없앴다. 이후 1910년대까지 필요에 따라 일부분씩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 도시의 중심부에 서 있는 성벽의 철거는 일제에 의한 인위적인 도시 개발의 서막이기도 하였다.

경복궁 내 들어선 조선총독부 건물이 마치 근정전을 위압하듯 맞은편에 자리한 것과 같이 읍성 내부의 중심이었던 동헌 '하모당'(何暮堂)의 반대편에 전남도청이 들어섰다. 동헌은 누각과 삼문 등 15채의 건물로 구성돼 있었다고 하는데, 1907년 도청이 들어선 뒤 점차 그 기능을 상실하고 한일강제합병과 함께 하나둘 철거돼 사라져갔다. 전남도청은 당시 대규모 서양풍 목조건축으로, 광주를 대표하는 근대식 건물이었다. 이후 몇 차례의 증축을 거쳐 지금의 모습을 갖췄다.

전남도청이 2005년 무안 남악으로 이전한 뒤 비어 버린 공간에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들어선 것은 2015년의 일이다. 전당의 설계안을 두고 논란이 벌어지고, 5·18 민주화운동의 최후 항쟁 장소로서의 전남도청 별관을 보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개관이 늦춰졌기 때문이다. 설계자인 우규승의 '빛의 숲'의 개념은 주요 시설의 대부분을 지하에 두고 지상을 녹지로 하도록 했는데, 이는 웅장하고 높은 높이의 랜드마크를 바랐던 일부 시민들의 불만을 사기도 했다. 하지만 설계자의 디자인 철학은 개관한 지 4년이 지나면서 높이 평가를 받고 있다. 고층 아파트들이 에워싸고 있는 구도심에서 유일무이하게 광주를 상징하는 건축물로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 광주읍성을 복원하려는 시도가 있었고, 이후 석서정 등 광주 역사에 등장하는 유명한 정자를 설치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고증에 실패한 데다 그것을 어떻게 현재 그리고 미래에 이르기까지 매력적인 공간으로 만들 것인지에 대한 전략의 부재로, 제대로 광주 구도심의 재생과 연계되지 못해 아쉬움이 크다.

민선 7기 광주시가 15세기에 지어져 광주읍성 내 주요 유희 장소였던 희경루(喜慶樓)를 중건하는 사업을 본격화한다고 한다. 60억 원의 예산으로 과연 희경루를 중건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 또한 원래 자리했던 충장로가 아니라 광주공원 일원에 2022년까지 짓겠다고 해 아무래도 우려가 크다. 중건의 기본 원칙은 그것이 있었던 장소에 철저한 역사적 고증을 거쳐 최대한 과거의 모습을 구현하는 것인데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방향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다. 광주의 역사 그리고 광주의 옛 건축물을 통해 구도심을 재생하고, 시민들에게 광주의 자긍심을 전하기 위해서라면 조금 더 맥락을 갖춘 복원에 나섰으면 하는 바람이다. 고층 아파트만 들어서는 도시 공간에 광주를 상징할 수 있는 건축물을 짓는 데 좀 더 노력과 시간과 예산을 투입했으면 한다.

법조칼럼

내 사무실의 자경문(自警文)

김상훈
변호사

조선시대 석학 율곡 선생께서 금강산으로 들어가 공부하다 오죽헌으로 돌아와 인생의 이정표로 삼고 평생 좌우명으로 삼고자 했다는 자경문 11조.

입지(성인을 본보기로 삼고 큰 뜻을 품을 것), 과언(말을 줄여 마음을 안정시킬 것), 정심(잡념과 망상을 없애고 마음을 고요하게 할 것), 근독(항상 경계하고 삼가는 마음을 가질 것), 독서(시비와 실천을 위해 글을 읽을 것), 소재욕심(재물과 영화에 대한 욕심을 없앨 것), 진성(할 일은 정성을 다하고, 안 할 일은 끊어 버릴 것), 정의지심(사소한 불의나 희생이라도 소홀히 하지 말 것), 감화(타인을 감화시키지 못하는 것은 나의 성의가 부족하다 여길 것), 수면(병이 있거나 밤에 잠을 잘 때 아니면 함부로 눕지 말 것), 용공지효(공부는 늦추어서도 성급해서도 안 되고 평생 꾸준히 할 것). 나이 20세에 이 같이 엄격한 삶의 자세를 표명했다니, 필자 같은 범부(凡夫)로선 비현실적이고 솔직히 그대로 따라하지 못할 것 같다.

그러나 범부에게도 각자 뜻 한 바가 있고 나름의 진심이 있게 마련이다. 그리고 누군가 인생에서 각 단계의 진심은 좌에서 우로 흘러가는 변화가 아니라, 아래에서 위로 쌓여 퇴적되는 층층이라고 생각된다.

현재 필자 사무실에 걸려 있는 세 개의 글씨 표구와 한 개의 글씨 목각이야말로, 필자가 서른 초 변호사를 시작할 때부터 쉰을 바라보는 현재까지 각 단계마다 고민하고 다짐했던 바를 대표하는 화석이란 생각이 든다.

첫째 열정과 냉정. 2002년 에쿠니 가오리와 츠지 히토나리가 따로 또 같이 쓴 '냉정과 열정 사이'를 감명 깊게 읽고, 1년 2개월 고용 변호사 생활을 끝내며 2004년 개업과 동시에 사무실 책상 위에 '열정과 냉정'이란 표구를 처음 걸었다.

의뢰인을 향한 주관적 뜨거움(파토스), 사건과 법리에 접근하는 객관적 차가움(로고스), 흔히 말해지듯 뜨거운 가슴과 차가운 머리! 뭐 이런 것을 뜻하는 것이었다. 명함에도 같은 문구를 새기고 다녔고, 2006년에는 소설 속 준세이와 아오이가 만나기로 약속했던 피렌체 두오모를 일부러 찾아 나설 정도였으니 위 문구에 대한 내 애착은 남다른 데가 있다.

둘째 청신근(淸愼勤)과 위인모충(爲人謀忠). 필자는 2008년부터 호남 유맥을 잇는다는 평을 받는 송담 이백순 선생님으로부터 한학을 배웠다. 소학으로 시작해 대학, 중용, 논어를 배우다 2012년 선생님이 작고하시자, 몇몇 선생님을 찾았지만 더 배울수록 선생님에 대한 그리움이 쌓였다.

다행히도 필자는 작고 전 2011년 겨울 선생님 댁을 찾아 마음에 새길 문구를 부탁 드려 내려 써 주신 위 두 글귀를 건졌다. 마음은 맑게 하고, 행동은 신중하게 하며, 항상 부지런하라(淸愼勤). 타인을 위해 일을 도모할 때는 충심을 다하라(爲人謀忠). 청신근이 삶에 대한 철학적 자세에 관한 것이라면, 위인모충은 실천적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비단 변호사 업무 뿐 아니라 사람 사귐이나 세상을 대하는 기준으로 삼을 만 한 것 같다.

끝으로 늘 처음처럼. 필자는 올 2월 고향 목포로 사무실을 옮겼다. 17년 가량의 광주 변호사 생활을 접는 것에 대해 약 6개월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었는데, 고민이 힘든 것이지 결정이 내려지니 일사천리였다.

25만 인구 목포에 와서 좋다면 좋은 것이, 한 다리 건너면 선후배요 고향 이웃이란 것이다. 가로 120㎝, 세로 40㎝, 두께 약 10㎝ 정도 되는 목각 글씨 '늘 처음처럼'도 점심 먹으러 갔다가 전시된 글 중 마음에 들어 구입한 것이다.

식당 주인은 직원의 언니 친구, 목공예 작가는 필자가 일곱 살까지 유년 시절을 보낸 해남 출신이란 인연과 내 넉살이 작용해서 전시가의 50%에 구입할 수 있었다. 광주에서 개업을 할 때 새긴 '열정과 냉정', 선생님께 '청신근, 위인모충' 글씨를 처음 받을 때 초심을 놓치지 말자는 생각을 진정 잊지 말아야겠다.

기 고

청년 일자리의 보물 창고

이승권
조선대 취업학생처장

누구나 생활이 안정되지 않으면 바른 마음을 유지하기 어렵다. 사람마다 직업을 가지는 이유가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생계 유지나 자아 실현, 신분 상승 등을 떠나서 기본적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안정적 일자리가 꼭 필요하다. 이와 관련 춘추 전국 시대의 사상가 '맹자'는 일자리의 중요성을 무항산(無恒産), 무항심(無恒心)으로 정의했다. 즉 일정한 생업(恒産)이 없으면, 일정한 마음(恒心)이 없다는 것이다.

최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1분기 호남권 지역 경제 동향에 따르면 1분기에 광주·전남 인구 8000명 가량이 순유출됐다. 국내 인구 이동을 분석한 결과 광주는 603명이, 전남은 7335명이 각각 순유출 됐다. 10~30대 인구 순유출이 많은 것은 학업, 취업 등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우수한 인적 자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역 취업 인프라나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해 우수한 인재들의 수도권 유출이 지속돼왔다.

하지만 지역 인재들에게 희망적인 소식이 날아들었다. 우리 지역에 '광주·전남 공동 혁신 도시'가 들어선 것이다. 10개 혁신 도시 중 유일하게 광주·전남이 공동으로 조성한 '광주·전남 공동 혁신 도시'는 정주 인구 3만 명을 넘어서는 등 전국에서 제일 빠른 성장을 하고 있다.

2013년부터 한국전력공사 등 16개 공공 기관 이전이 시작돼 올해 1월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을 끝으로 16개 공공 기관 이전이 완료됐으며, 7600여 명의 임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2014년 198명을 시작으로 2018년까지 총 1514명(전체 채용 인원의 14.7%)의 지역 인재가 채용됐다. 2018년부터 혁신도시 이전 공공 기관의 지역 인재 의무 채용을 법률로 정함에 따라 이전 공공 기관은 의무 채용 목표 비율을 2018년 18%에서 올해는 21%로 확대한다. 이처럼 매년 3% 이상 확대해 2022년까지 30% 이상을 지역 인재로 채울 예정이다.

지난해 광주·전남 공동 혁신 도시 이전 공공 기관의 지역 인재 채용률은 21.1%로 359명이 채용됐으며, 이는 민선 7기 지역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의 결과로 목표 비율인 18%를 상회했다. 또한 올해 이전 공공 기관 전체 채용 규모는 2300여 명으로 400여 명의 지역인재가 선발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시는 지난 1월 이전 공공 기관 지역 인재 채용 비율 30% 조기 달성을 위한 '2019년 지역 인재 채용 활성화 추진 계획'을 수립, 지역 인재 채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2월에는 나주 한전 KDN에서 개최된 제8차 광주·전남 공동 혁신 도시 공공기관장협의회의 공동 과제로 상정했다. 이 자리에서 이용섭 광주시장은 "지역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지역 젊은이들이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채용 비율 확대에 공공 기관이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3월에는 '광주·전남 공동 혁신 도시 지역 인재 채용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했다.

4월엔 조선대학교가 주관해 지역 인재들에게 이전 기관 취업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광주·전남 공동 혁신 도시 이전 공공 기관 합동 채용 설명회'를 조선대 해오름관에서 성황리에 열었다. 한전을 비롯한 13개 이전 기관 및 광주은행을 비롯한 지역 기업 3곳 등 18개 기관이 참여하고 3000여 명의 지역 학생이 방문해 뜨거운 열기를 보여주었다.

5월엔 조선대과 호남대 학생 80명이 한전, 한전 KDN, 한전 KPS 3개 이전 기관을 찾아 시설 투어, 채용 관련 질의응답 등을 통해 어렵게 생각했던 공공 기관 취업에 대해 현실적으로 준비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며, 하반기에도 전남대, 광주대, 광주여대를 대상으로 탐방 이전 기관과 참여 학생 수를 늘려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맞춤형 인력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을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한전, 한전 KDN, 전력거래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오픈 캠퍼스를 다른 이전 기관까지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며, 민·관·학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광주·전남 공동 혁신 도시 지역 인재 채용 협의체 및 실무 협의회'를 구성·운영해 지역 인재의 취업 촉진을 위해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최근 13개 이전 공공 기관에서 상반기 인력 채용을 거의 마무리하고 8월부터 하반기 채용에 나설 계획이다. 매년 400여 명의 우수한 지역 인재가 타 지역으로 가지 않고 지역에 정착할 것이다. 16개 공공 기관이 이전한 빛가람 광주·전남 공동 혁신 도시는 매년 400여 개 양질의 일자리가 나오는 우리 지역 청년 일자리의 보물 창고임에 틀림없다.

보다 많은 지역 인재가 채용되어 의무 채용 비율 30%가 조기 달성되기를 기대해 보며 광주시와 대학, 이전 공공기관, 지역 사회 구성원이 모두 지혜를 모아 지역 인재들에게 꿈을 주는 혁신 도시로 만들어 가야 하겠다.

社說

수영대회 기록은 물론 흥행까지 저조하다니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어느덧 중반을 넘어 종반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개최국인 우리나라는 '구경꾼' 신세에 머무르고 있다. 선수층이 얇다 보니 성적 저조는 어쩌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다. 하지만 경기장 관람석마다 빈 좌석들이 크게 눈에 띄는 등 대회 흥행마저 저조하다니 안타까운 일이다.

대회 폐막(28일)을 일주일도 남겨 놓지 못한 시점에서 메달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는데, 대한민국은 김수지(21) 선수가 동메달을 획득해 그나마 개최국으로서의 체면치레는 한 셈이 됐다. 그러나 더 이상 메달 소식은 들려오지 않는다. 이에 따라 이번 대회를 계기로 수영 인구 저변 확대와 경기시설 확충 등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현재까지 큰 안전사고 없이 대회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물론 사소하지만 일부 운영 미숙이 눈에 띄기도 했다. 대한수영연맹이 후원사와의 계약 차질로 인해 다이빙 대표팀이 테이프를 부착한 유니폼을 입고 출전해야 했던 해프닝 등이 그것이다. 더군다나 대회가 막판으로 치닫고 있는데도 좀처럼 대회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지 않다니 안타깝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중계권 문제로 국내 공중파 방송 한 곳이 중계를 독점한 데다, 생중계 편성 시간마저 많지 않은 것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한데 더욱 큰 문제는 관람석에 빈자리가 많이 눈에 띈다는 점이다. 이번 대회 입장권은 100% 넘게 팔려 개막 전부터 흥행이 기대됐는데, 어찌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 대부분의 입장권이 기업과 기관들의 단체 구매였기 때문이다. 입장권을 갖고도 경기장을 찾지 않은 시민이 많았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이는 결국 대회 주최 측의 홍보 부족과 시민들의 관심 부족이라 할 것이다. 이제 남은 기간 동안에라도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

수백억 들인 지하차도 주민 안전 위협해서야

수백억 원을 들여 신설한 광산구 소촌 건널목의 지하차도 높이가 낮아 소방차 등 중대형 차량의 진입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지하차도와 맞닿은 지상 도로 구간에 인도를 없애고 전기 시설물을 설치하면서 보행자의 안전까지 위협해 졸속 공사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광주시종합건설본부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이달 말 완공을 목표로 24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소촌 건널목 입체화 공사'를 진행 중이다. 이 공사는 극심한 차량 정체와 교통사고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건널목에 폭 13.5m, 길이 120m 지하차도를 설치, 상무대로에서 송정공원 방면으로 차량과 사람이 상시 통행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 지금은 열차가 지나가면 차단목이 내려와 통행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런데 인근 소촌동·신촌동 일대 주민들은 최근 "입체화 공사가 오히려 주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재공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새로 설치되는 지하차도의 높이가 3.4m밖에 되지 않아 소방차 등 중대형 차량의 진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소방 펌프차의 높이는 3.4m(대형 기준), 소방 물탱크차는 3.4m, 소방 사다리차는 3.8m다.

또한 공사 과정에서 송정공원 등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기 시설이 지하차도 진입도로의 중앙에 설치되면서 일부 구간의 인도가 사라졌고, 지하차도에서 지상으로 올라오는 보행로는 경사가 심해 교통 약자들이 이용하기가 어려운 점도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다.

이처럼 주민 안전을 위해 설치한 지하차도가 소방차조차 다닐 수 없어 다른 곳으로 우회해야 한다면 화재 시 골든타임을 놓칠 우려가 크다. 아울러 인도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것은 부실 설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광주시는 드러난 문제점을 조속히 보완하고 개선해 주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호모 아쿠아티쿠스

인간을 정의하는 생물학적 학명은 호모 사피엔스다. 직립보행을 하는 인간인 호모 에렉투스는 호모 사피엔스 이전의 조상으로 알려져 있다. 이밖에 노동하는 인간을 뜻하는 호모 라보란스와 소비하는 인간인 호머 컨슈머스도 보편적 개념으로 사용된다. 최근에는 문명을 매개로 한 정의도 늘고 있는데, 놀이하는 인간이라는 뜻의 호모 루덴스, 모바일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호모 모빌리언스 등이 그러한 예다.

영국의 과학 저술가 일레인 모건은 '인류의 조상이 물에서 생활했다'는 '수생유인원 이론'을 주장한다. 인류가 진화 과정에서 침팬지가 아니라 돌고래처럼 '수생기'를 거쳤다는 주장이다. 그에 따르면 인간은 육지 포유류 중에서는 독특하게도 태지라는 지방질로 뒤덮인 채 태어나는데, 이는 물에서 태어난 아기들에게 방수막이 돼 준다고 한다. 인류 진화 과정을 물을 매개로 설명한 '호모 아쿠아티쿠스'(Homo Aquaticus)가 설득력을 지니는 것은 그러한 연유들과 무관치 않다.

'처음 읽는 수영 세계사'의 저자이자 수영 코치인 에릭 살린도 수영은 수렵·종교 의식·예술 등 거의 모든 부분과 연결돼 있다고 주장한다. 네 가지 원소인 물·공기·흙·불 가운데 인간이 자유롭게 접촉할 수 있는 것은 물이다. 신체적 한계를 지닌 인간은 날아오를 수도, 땅속으로 파고들 수도 없다. 물론 서유럽 신화에 나오는 샐러맨더처럼 불을 뚫고 나가지도 못한다. 그럼에도 물고기처럼 헤엄을 칠 수 있는데, 그 능력이 오늘의 해양 문화로 이어졌다.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폐막이 일주일 정도 앞으로 다가왔다. 수영의 불모지인 우리나라이지만 한국 다이빙 사상 처음으로 김수지 선수가 '1m 스프링보드'에서 메달을 땄고, 여자 수구 팀은 러시아전에서 감격의 첫 득점을 올렸다. 다이빙 간판 우하람 선수는 11위에 올라 12위까지 주어지는 도쿄올림픽 본선 진출권을 획득했다.

상선약수(上善若水)라는 말에서 보듯이 '지극히 좋은 것은 물처럼 자연스럽게 흐르는 것'이다. 이번 수영대회를 계기로 '빛고을 정신'이 물처럼 지구촌 곳곳으로 흘러들었으면 한다. 바야흐로 수중적 인간인 호모 아쿠아티쿠스 시대가 도래했다.

/박성천 문화부 부장 skypark@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체육부 220-0633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예향부 220-0692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52	사진부 220-0694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42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